



S-OIL MAGAZINE
June 2015

Vol. 403

06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CEO와의 소통 세션

18 햇살나눔
소방관 부부 캠프

38 내 마음의 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40 섬을 걷다
인천 세어도



CEO와의 소통 세션



소방관 부부 캠프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 CEO와의 소통 세션
- 윤활기유 해외고객 초청 행사
- 교통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 자녀 장학금 전달
-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
- 우수 · 최다 제안자 시상

11

소식 모아보기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공장 견학
- 마케팅총괄 영업현장 방문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워크숍

통권 제403호

발행일 2015년 6월 3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15

단신

- 성과우수지사 시상
- 노란경품대잔치 1등 경품 당첨자 배출

17 포켓 석유상식

- 유사석유

18 햇살나눔

- 햇살나눔 스토리보드
– 소방관 부부 캠프
- 햇살나눔 후기 · 단신



27 두런두런 수다방

- 동기회 네팔 지진 피해복구 기부
- S-OIL서포터즈 공장 방문

30 열정 24시

- 윤활기술팀 윤계상 사우
- 기획분석팀 정수환 사우

32 No.1 주유소

- 남양주 광전충전소



34 가족 이야기

- 세월 가도 변함없는 올곧은 사랑
– 수소3과 최용관 사우 가족

36 애호가들의 수첩

- 문화평론가 이상우

38 내 마음의 미술관

- 양평군립미술관

40 섬을 건다

- 바람 따라 걸으며 고독한 평화 노래하는
'도시 속 오지'
– 인천 세어도

44 100세 습관

- 가방 메는 자세 습관

46 나의 롤모델

- 운명을 극복한 노력의 기적
고전음악가 '베토벤'
– 동부영업지원팀 박원민 사우

48 열린 서재

- <내 사람이다> 곽은정

50 편집공지/독자엽서



젊은 활력 북돋는

따뜻한 소통



CEO와의 소통 세션

5월 28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젊은
직원이 함께하는 정겨운 소통의
장이 열렸다. 이번 소통 세션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자리로,
마하서 CEO 포함한 직원
10여 명이 함께했다.

CEO와의 소통 세션이 젊은이들로 '핫'한 홍익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마하서 CEO와 입사 2년차 이상 직원 등 10여 명은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CEO와의 소통 세션은 회사의 지속성장과 함께 미래의 주역으로서 역량을 쌓아가는 젊은 직원들이 최고경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당면한 현실을 인식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통찰력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임은 직원 세 명이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층 유연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직원들은 흥미로운 화두인 동시에 회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일깨울 만한 인문사회 분야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첫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방준혁(해외마케팅전략팀) 사우는 호주 멜버른에 새 명소로 자리한 샌드위치 가게 '재플슈츠(Jafflechutes)'를 소개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7층에서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주문 창구도 없이 운영되는 이 가게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으로 주문을 받은 뒤 작은 낙하산에 음식 봉투를 매달아 고객이 기다리는 1층으로 날려보낸다. 상점 입지에 맞춘 남다른 생각으로 재미를 선사하고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업 성공 스토리에 마하서 CEO와 직원들의 감탄이

교차했다. 방준혁 사우는 “우리회사 또한 일 찌감치 수출시장을 공략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 성장을 일궈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내재된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마하서 CEO는 “발표한 사례에서 보듯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혁신이 곧 우리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재형(에너지관리팀) 사우는 프로야구팀 ‘한화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을 소재로 발표에 나섰다. 좋은 리더의 덕목을 젊은 직원들과 공유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직 관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전사적인 성과 향상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프로야구 6개 팀 감독을 역임하고 한국시리즈 3회 우승기록을 보유한 김성근 감독은 야구계를 넘어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로 손꼽힌다. 발표를 통해 책임감, 진정성, 인내와 신뢰 등으로 집약된 김 감독의 리더십에 마하서 CEO와 직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마하서 CEO는 “한국인들이 야구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며 “나도 김성근 감독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포츠로 새로운 의욕을 충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일”이라고 평하고 “언젠가 리더가 될 여러분 모두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참가 후기



“따뜻한 포옹에 힘이 생겼습니다”

모임의 목적을 ‘편안한 대화’로 정의한 마하서 CEO의 첫마디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라 마하서 CEO의 재치 있는 조언이 이어지고, 이에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게임을 하며 하이파이브로 격려하고 헤어질 때에는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CEO와 다방면의 이야기로 소통하는 이런 자리가 직원들의 사기증진과 활력회복에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글 배성진(전주지사)



“열린 의견을 나누는 시간, 유익했습니다”

캠핑장 같은 장소, 적당히 훈훈한 날씨, 그리고 마하서 CEO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의 활력으로 소통의 자리를 편안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의 프레젠테이션과 그 안의 시사점들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고, 리더십과 혁신에 대한 마하서 CEO의 열린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즐거운 소재로 직원들과 어우러지는 마하서 CEO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 김솔해(신규사업팀)

장형준(수급운영팀) 사우는 ‘파도타기(surfing)’를 소재로 발표를 이어갔다. 파도타기의 기본기부터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까지 제시하고 파도타기를 함양하는 네 가지 요소를 회사 경영과 연관 지어 설명했다. 마하서 CEO는 “파도타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회사에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뒤이어 림보와 다트, 주사위 등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마하서 CEO와 직원들은 소박한 놀이들로 서로를 북돋우며 정겨운 한때를 보낸 뒤 기념촬영으로 다음 번 만남을 약속했다.



윤활기유 글로벌 고객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윤활기유 해외고객 초청 행사

윤활기유 해외고객 초청
행사가 지난 5월 13~16일
서울과 제주에서 진행됐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윤활기유
시장에서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마케팅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윤활기유 공급자로서 회사
위상과 고객 로열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첫날 그랜드하얏트서울(서울시 용산구 소월로)에서 진행된 환영만찬에서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류열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고객을 환대하며 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등 전 세계 각 시장에서 약 30명의 글로벌 고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칵테일 리셉션을 통해 고객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마하서 CEO는 우리회사와 제품에 대해 변함 없는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류열 수석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반가운 마음을 전하면서,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윤활기유 사업에 역점을 둔 회사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기인한 어려움 속에 강한 유대와 신뢰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고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높은 품질의 윤활기유와 향상된 서비스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동반성장의 가치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참가 후 메시지

"파트너십 변함없이 지속하겠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행사를 마련 해주어 고맙습니다. 편안한 숙박을 비롯해 세심하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피오소에너지가 에스-오일과 20년 넘게 파트너십을 지속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헤드 테이블에 앉아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에스-오일과 변함없는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로우 히 텍(Low Hee Teck) · 피오소에너지

"세심하게 준비한 일정,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한국에 초대해주고, 머무는 동안 사려 깊게 돌봐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준비하신 이벤트를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탄 파이 록(Tan Pai Kok) · 토탈

이튿날 제주로 이동한 고객들과 우리 임직원은 시장 동향을 비롯한 정보 소통 세션에 참가했다. 고객들은 우리회사의 현황과 윤활기유 공정을 접하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의 윤활기유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이후 일정은 관광과 스포츠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광에 나선 고객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는 가운데 감귤농장과 테마파크, 식물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우리 임직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스포츠활동을 선택한 고객들은 탁 트인 필드에서 제주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골프로 친선 대결을 펼쳤다.

이번 사은행사는 전 세계 주요 고객들과 3박4일 동안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업체별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속성장의 가능성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고객과 한층 두터운 우애를 다지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향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물류 동맥 누비는

교통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 자녀 장학금 전달

우리회사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자의 자녀를 위해 에스-오일토탈유탈유와 함께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우리회사는 주요 고객이자 육상수송의 주역인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의 가족을 위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

화물차 운전자를 응원합니다



우리회사 류열 수석부사장과 에스-오일토탈유탈유 파스칼 리고 CEO는 5월 26일 화물복지재단(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을 방문해 신한춘 재단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화물차 운전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7천만 원을 전달했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우리회사는 이 사회의 진정한 역군으로서 제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기부는 경제 발전의 숨은 주역인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가정에 경제·심리적 안정을 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맥인 육상수송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주역들이면서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회사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꾸준히 실행해온 가운데, 2008년 '화물차우대 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물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의 품질 관리를 지속해 운전자들로부터 품질 우수성에 대해 신뢰받고 있다.



방방곡곡 주유소 따라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

우리회사와 계열주유소가 연계해 지역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지역본부·지사와 계열주유소 운영인들은 5년째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햇살 같은 사랑 번집니다

5월 7일 경일주유소(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류열 수석부사장이 정구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에게 후원금 3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우리회사는 2011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주유소와 함께 지역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지역본부·지사 임직원들이 300여 곳 주유소 운영인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 실정에 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하고, 아동센터, 장애인·노인시설 등을 방문해 배식·청소·목욕 등 자원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다.

영업 현장의 직원들은 주유소 운영인들과 사회봉사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의 복지시설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임직원들과 주유소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1천200여 회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후원금 전달도 지속하고 있다.



빛나는 아이디어로

운영 효율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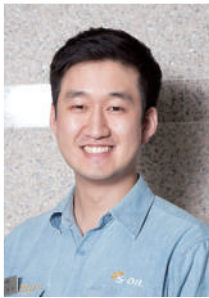
우수 · 최다 제안자 시상

변독이는 아이디어로 공장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을 높인
1분기 제안상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제안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수여됐다.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제안과 최다제안을 내놓은 올해 1분기 제안상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4월 27일 공장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우수제안자 3명과 최다제안자 3명에게 표창장과 주유상품권을 수여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장의 안정 운영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공로가 제안상 시상으로 빛을 발했다.

우수제안자로는 조재혁(정유공정과 정유공정과) · 김영재(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 최원철(정유공정과 정유공정과) 사위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윤성(분해1부 탈황1과) · 방성민(계전부 계기1과) · 조일충(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사위가 최다제안자로서 보람찬 기록을 세웠다.

[우수제안자]



조재혁(정유공정과)

등유탈황 공정에서 황화합물 농도를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화학물질(MEROX-RG)의 주입 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2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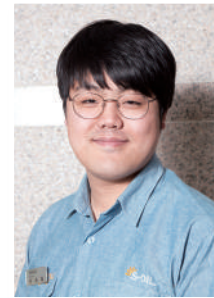
제안이 성과로 실현되기까지 선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제안 소재를 발굴해 제가 많은 공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재(PX생산1과)

추출잔유물(Raffinate) 탭의 O/H로 환류되는 유체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열교환기(MVR)만을 가동해 폐열 회수를 통한 스팀 추가 생산으로 연간 13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공정 운전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좋은 제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최원철(정유공정과)

수첨탈황 공정에서 반응온도를 최적화해 연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생산제품의 황함량이 규격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착안해 반응온도를 최적화한 결과 연간 약 19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과와 공정과 모두가 개선을 위해 협력해주셨기에 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공정 최적화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했고, 이런 활동을 지속해 이익개선에 보탬이 되면 합니다.

[최다제안자]

정윤성(탈황1과) · 방성민(계기1과) · 조일충(품질관리2과)

우수 인재와 굳건히 이어가는 인연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공장 견학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학생들이 5월 8~9일 온산공장 견학에 나섰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와 우리회사의 산학협동 강좌인 '공학기술과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우리회사는 우수인력 유치를 도모하고 산학협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학기에 강좌를 개설하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와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견학에는 화학생명공학부 김재정 학부장과 이종찬 부학부장을 비롯해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방문단은 박봉수 수석부사장의 특강으로 정유산업의 특성과 우리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에 대해 듣고 홍보영화를 통해 회사의 발전사와 현황,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장 실무자가 설명하는 공장 소개를 접하며 우리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장 투어는 제1파라자일렌공정을 필두로 윤활공정, 상압증류공정, 원유탱크, 제1아로마틱공정, 수소세조공정, 중질유수소첨가분해공정, 알킬레이션공정, 중질유접촉분해공정 등으로 진행됐고, 뒤이어 '도약의 다리'를 건너 제2아로마틱공정과 출하부두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사택 클럽하우스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은 정유산업 현장과 진로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방문단은 숙소가 마련된 경주로 이동해 견학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튿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가운데 “정유공장을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전했습니다.

글 이윤백(올레핀사업개발팀)

전통의 고향에서 모색한 성공적인 미래

마케팅총괄 영업현장 방문



마케팅총괄 영업현장 방문 일정이 5월 28일 안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류열 수석부사와 신동열 부사장을 비롯한 본사·본부 임원 및 팀리더·지사장·저유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이번 현장 방문은 동부지역본부 산하 지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일정은 안동의 유서 깊은 곳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뒤 전란 극복과정을 기록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쓴 '징비록'의 집필 장소인 옥연정사,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세운 병산서원, 하회마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용대를 차례로 둘러본 뒤 하회마을 회관에서 도포와 유건을 착용하고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와 판매 증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류열 수석부사는 최근까지의 판매실적을 통해 우리의 저력을 확인하고 회사 중장기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 것에 대해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본부의 전략적 중요성을 환기하고 향후 생산목표에 걸맞은 내수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뜻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동열 부사장은 동부지역의 5년, 10년 뒤 시장환경 변화 예측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이를 과감히 추진하자고 격려했으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영업판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판매증대를 이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동부지역본부 각 지사의 판매전략 논의로 지속됐습니다. 뒤이어 안동의 고즈넉한 정취를 품은 전통한옥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글 조준영(소매관리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어깨동무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워크숍



협력업체 공생 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관리감독자 워크숍이 한화리조트경주(경북 경주시 보문로)에서 5월 12일과 14일, 19일 총 3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각 차수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공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 30개사의 관리감독자와 우리 직원을 포함해 총 97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올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노하우와 기술을 지원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숍을 비롯해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안전캠페인 실시 지원, 안전경영시스템 취득 지원, 안전작업 동영상 제작, 안전진단 발표회 지원, 안전문화 강좌 지원, 안전관리 공적자 포상 등 공생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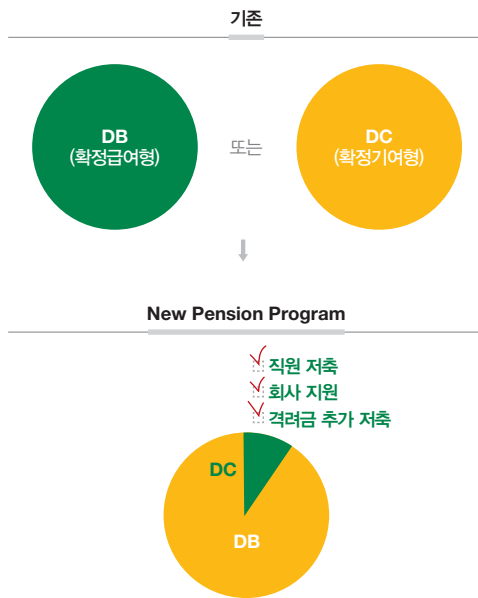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안전문화와 안전경영, 안전문화 그림그리기, 안전관리 실무, 작업위험성 공통평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화학산업의 선진 안전문화를 숙지한 뒤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호와 상징, 스케치 등을 활용해 안전문제 상황을 그려보는 특별한 순서를 비롯해 안전 관련 직무상황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습니다.

글 박정호(안전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독자적인 지원

새 퇴직금 제도 'New Pension Program' 시행



우리회사가 새 퇴직금 제도(New Pension Program)를 도입하고 설명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열흘 동안 신청기간을 둔 새 퇴직금 제도는 5월 급여에 일제히 적용돼 직원들의 노후 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새 퇴직금 제도는 기존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회사가 직원과 함께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하고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를 도입해 한층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직원들은 매월 기본급의 10%를 저축합니다. 이에 더해 회사가 직원 저축액의 50%(세전이익 1조 원 초과 시 60%)를 지원해 적립액을 높이게 됩니다. 격려금이 지급될 경우 격려금의 10~20%를 추가로 저축합니다. 결국 기존 법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회사가, 신규 직원 저축액 및 회사 지원액은 확정기여형(DC)으로 직원이 운용해 퇴직 시에 혼합형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글 주정락(변화혁신추진팀)

생각이 유연해지는 금요일

진스 데이(Jean's Day) 시행

금요일 출근길에 오른 직원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진스 데이(Jean's Day) 시행에 따라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캐주얼 복장이 가능한 날로 정했습니다. 작업복을 착용하는 공장·저유소 근무자와 비즈니스 예의상 정장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아니면 매주 금요일 진스 데이에 동참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청바지나 면바지에 티셔츠, 단화나 운동화 차림의 직원들이 로비 출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복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직원들의 기분과 회사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회사 일상의 소소한 변화가 생각의 확장을 이끌고, 폭넓어진 생각이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글 김민영(변화혁신추진팀)



S-OIL NEWS

성과우수지사 시상



국내영업본부가 올해 1분기 성과우수지사를 선정하고 5월 2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광주·구미·부산·청주 지사가 성과우수지사 선정의 영예를 안은 데 이어 성과개선회사로 대전지사가 상을 받았다.

분기별로 시행되는 성과우수지사 평가는 판매·수익·유통

망·회사정책기여도 등에 걸쳐 상위 4개 지사를 선정하며, 전분기 대비 순위 변동을 기준으로 성과개선 지사를 가린다. 성과우수·개선회로 수상한 각 지사에는 상패와 포상금이 지급되며, 정유영업본부장 명의의 서신으로 격려 메시지가 전달된다.

글 박성진(영업전략팀)

노란경품대잔치 1등 경품 당첨자 배출



고객사은의 뜻을 담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노란경품대잔치를 통해 1등 경품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매일주유소(서울시 동작구 상도로)를 이용한 박 모 고객으로, 경품 당첨에 따라 1년 주유권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노란경품대잔치는 우리 계열주유소를 애용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1년 주유권 300만 원(3명)을 비롯해 삼성 에어컨, 여행상품권, 엔진오일, 류현진 사인볼 등 푸짐한 경품의 행운이 120만 명 고객에게 돌아갔다.

글 김태영(브랜드마케팅팀)

보너스카드 회원 리조트·테마파크 등 상시 할인 서비스



보너스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펜션 및 테마파크·워터파크 상시 할인 서비스가 개시됐다.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의 '힐링존'을 통해 리조트 약 150개소와 펜션 약 100개소 및 캐러밴 시설 20개소, 테마파크·워터파크 약 30개소(우리회사 휴양소 운영업체인 ㈜여행창조와 제휴)를 판매가 대비 기본할인 30~70%에 추가 3%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 예매·이용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대 법인휴양소 운영업체가 제휴사로 지정돼 있어 성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글 허년석(브랜드마케팅팀)

임원동정

- 5.22** 김형배 상무(RUC PM 겸 공장혁신/기획부문 담당)→전무 대행(RUC 본부장)
홍승표(1급,공정Upgrading추진부장)→상무보(공장혁신/기획부문 담당)

인사동정

3급 이상 사원 정가승진

- 4.1** **2급→1급** 이용춘(석유화학공정팀리더) 김병건(공정자동화팀리더) 심환승(생산최적화팀리더) 홍성희(이익개선팀리더) 김영배(기획분석팀리더) 류진열(대외업무팀리더) 김태훈(동경지사장) 노태현(안동지사장) 박정용(진주지사장) 이영호(구매관리팀리더) 강경돈(자금계획팀리더) 송동수(리스크관리팀리더) 김대문(RUC관리팀리더) 서봉교(RUC추진팀리더) 박병인(원유팀리더)
- 전문차장→전문부장** 윤종원(IT보안팀리더) 김중주(에너지관리팀) 민웅기(브랜드마케팅팀 브랜드관리파트리더) 윤계상(윤활기술팀)
- 3급→2급** 김차룡(분해3부 정유3과장) 이명균(공무부 설계2과) 정동진(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장) 송인호(안전관리부 안전관리과장 겸 SA-E준법지원과장) 나유웅(인사후생부 인사과장) 김인환(소매관리팀) 이수영(판매계획/분석팀) 이상훈(브랜드마케팅팀) 이명호 서광덕(직영주유소관리팀) 강석환(대리점영업팀) 오영국(LPG팀) 이석필(동부영업지원팀) 이승섭(서부네트워크관리팀) 신해식(인천지사) 최영천(남양주지사) 조병욱(원주지사) 함준석(강릉지사) 이영목(대구지사) 양경문(부산지사) 강진호 박진홍(창원지사) 김진호(광주지사) 김용진(목포지사) 김석배(전주지사) 이종환(정유Light제품팀) 우동구(수송팀) 정상우(윤활기유해외마케팅팀) 백연경(총무팀) 김경현(총무팀 비상계획파트) 정국진(인사팀) 이관호(회계팀 계유과) 박준용(신용관리팀) 권오익(경영개선팀) 조영빈(Downstream추진팀) 정태성 최병원(프로젝트구매부문)
- 4급→3급** 이욱용(정유생산부 정유2과장) 김용기(Aromatics생산2부 Aromatics생산2과장) 조은찬(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장) 서형희(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장) 전동훈(기계부 예방정비1과) 이준희(계전부 계기2과장) 민관식(공무부 설계2과) 이재현(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장) 양태성(분해공정부 HVC/LUBE공정과장) 권길상(분해공정부 RFCC공정과장) 송원우(공정자동화팀) 김남수(생산최적화팀) 정기식(생산조정팀) 김동훈(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 윤효성 김진원(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 박재형(에너지관리팀) 최준걸(이익개선팀) 홍성길(안전보건부 안전과장) 김병태 양승직(영업전략팀) 구자현(브랜드마케팅팀) 박우권(LPG팀-부산지사 파견) 이상상 김희달(LPG팀-동부영업지원팀 파견) 김용진(LPG팀-서부영업지원팀 파견) 정재용(서부네트워크관리팀-광주지사 파견) 장홍진(인천지사) 이훈남(수원지사) 윤석원(남양주지사) 황영기 강성우(안동지사) 박승수(부산지사) 이일식(울산지사) 김민수(대전지사) 유재호(청주지사) 김복근(광주지사) 김동인(심가불지사) 서형주(석유화학마케팅전략팀) 백호(상해지사) 김정연(구매팀) 최동범 허성훈(인력개발팀 부) 박재홍(자금운영팀) 최승호(세무팀) 배재승(관리회계팀) 정승원(신용관리팀) 신정국(경영관리팀) 김인성(신규사업팀) 박진우(시설투자기획팀) 이성수 이효석(RUC추진팀) 홍승환(신불수(RUC추진2팀) 이혁진 임정옥 한기원 정장식 유인호(프로젝트기술부문) 박만수(프로젝트구매부문) 김영규 김진욱(수급운영팀) 홍상영(감사팀) 서수연(CEO실)
- 계장→과장** 김대연(정유생산부 정유1과 선임계장) 이정재(분해1부 수소1과 선임계장) 박영래(송유/동력공정 Safety Foreman) 오영석(감사부 감사과) 김상원(노사협력팀)
- 임명** 김일권(책임법무원 법무팀리더 대행)→법무팀리더 금동호(책임법무원,준법지원팀리더 대행)→준법지원팀리더 최석주(2급,대외업무팀)→대외업무팀 전문부장(대행)

4급 이하 사원 정가승진

- 4.1** **5급→4급** 김황호(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 김수호(설비관리계획팀) 김성민(계전부 예방정비2과) 이현규(장치부 장치1과) 김대검(공무부 설계1과) 김건일 진재환 이광천(공무부 설계3과) 김태현(감사부 감사2과) 김주현(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이영걸 이광동(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 김현민 박승희(분해공정부 RHDS공정과) 최연대(분해공정부 HVC/LUBE공정과) 김성부(촉매연구팀) 김청일 최률호(생산조정팀) 박갑동 류희조(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과) 이세영(기획분석팀) 이봄이(고객서비스팀) 조용민(판매계획/분석팀) 김성준(브랜드마케팅팀) 김형수(법인영업팀) 류승진(LPG팀) 신수연(해외마케팅전략팀) 유준기(정유Heavy제품팀) 나누리(해외운영팀) 유영준(웅선팀) 오초희(석유화학제품팀) 김수민(윤활기유해외마케팅팀) 윤홍식(윤활기유국내영업팀) 김낙중(업무팀) 김승배(홍보팀) 이민규(관리회계팀) 이성훈(신용관리팀) 정하영(경영관리팀) 박정민(생산IT지원팀) 최문석(RUC관리팀) 이홍규 조정현(Downstream추진팀) 박상찬(원유팀) 장형준(수급운영팀)

6급→5급 유상규(회계팀)

- 일반사무직2급→일반사무직4급** 박영미 박영희(업무부 총무과) 최윤미(업무부 경리과) 박수환(영업전략팀) 황정미(윤활운영팀) 김해숙(총무팀) 정순영(구매관리팀) 홍경미(인사팀) 김안진(회계팀) 박현주(회계팀 계유과)
- 일반사무직3급→일반사무직2급** 박은정(공무부 자재관리과) 최혜정(안전보건부 산업보건과) 이인록(중부네트워크관리팀) 김기선(강남지사) 허영선(울진지사) 이하영(HR기획팀)
- 일반사무직4급→일반사무직3급** 서지현(영업전략팀) 박선영(총무팀)

보직변경

- 5.16** 김택언(계장,제주저유소)→제주저유소 Safety Foreman
- 5.22** 정동진(2급,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장)→공정Upgrading추진부장(대행)
- 5.26** 이동범(1급,프로젝트구매부문 팀리더)→프로젝트구매팀리더 김용호(1급,북리후생팀리더)→프로젝트예산팀리더 이영호(1급,구매관리팀리더)→프로젝트구매부문 팀리더 남호철(2급,프로젝트기술부문)→프로젝트기술1팀리더(대행) 김상배(2급,프로젝트기술부문)→프로젝트기술2팀리더(대행) 원종석(2급,RUC추진2팀)→RUC추진3팀리더(대행) 조영빈(2급,Downstream추진팀) 박수용(4급,RUC추진2팀) 조정현(4급,Downstream추진팀)→RUC추진3팀 박영훈(전문차장,프로젝트구매부문) 최홍근 정태성 최병원 김준호(2급,프로젝트구매부문) 이영민 박만수(3급,프로젝트구매부문) 박태우(5급,구매관리팀) 조성민 김병기(5급,프로젝트구매부문)→프로젝트구매팀 이혁진 이계중 유인호(3급,프로젝트기술부문) 유승현 김태오 최광현 전태준(4급,프로젝트기술부문)→프로젝트기술1팀 임정옥 한기원 정장식(3급,프로젝트기술부문)→프로젝트기술2팀 최문석(4급,RUC관리팀)→프로젝트예산팀 김홍민(4급,Downstream추진팀)→RUC추진1팀 조준형(5급,RUC추진1팀)→RUC추진2팀 김형진(5급,RUC추진2팀)→ODC추진팀
- 6.1** 전면호(2급,정유생산부 정유1과장)→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장 김동훈(3급,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장 윤효성(3급,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장 여상길(3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석유화학공정팀 백승훈(4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정유생산부 파견)→정유생산부 정유1과장(대행) 최종필(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교대계장 전병원(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교대계장)→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양경문(2급,부산지사 판매담당)→창원지사 판매담당 하인목(3급,창원지사 판매담당)→진주지사 판매담당 한성원(3급,수급계획팀)→원유팀 김진욱(3급,수급운영팀)→수급계획팀 김중훈(4급,수송팀-배차센터)→부산지사 판매담당 김유라(4급,원유팀)→수급운영팀 장민정(5급,구매팀)→구매관리팀 황창선(5급,중부영업지원팀)→인천지사 판매담당

해외유학 파견 복귀

- 6.1** 장예리(4급,인력개발팀 부)→경영기획팀

정년퇴직

- 5.31** 박한오(안전보건부 안전과)

퇴직

- 5.29** 황인석(3급,진주지사)

부음

- 5.11** 유형중(환경운영과) 조모
백승훈(정유공정과) 조모
- 5.15** 이진희(탈황1과) 부친
- 5.17** 이종욱(웅선팀) 조부
- 5.21** 황태건(직영주유소관리팀) 빙부
- 5.24** 조대현(신용관리팀) 부친
- 5.26** 오성환(정유2과) 부친
- 5.28** 조병욱(원주지사) 부친
- 5.29** 이정인(네트워크개발팀) 부친
- 5.31** 김태호(연료연구팀) 빙모

결혼

- 5.9** 정찬형(제품운영1과)
- 5.16** 전효철(촉매연구팀)
- 5.23** 박창은(석유화학공정팀)
- 5.30** 김영현(운영지원팀)
- 6.14** 김지환(계기1과)
- 6.20** 권대용(윤활기유국내영업팀)
- 6.21** 윤태근(해상출하과) 딸

차와 환경을 해치는 유사석유

2000년대 초반에 유사석유가 대중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정품 정유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연료계통을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드러났고, 가짜휘발유로 결론이 나면서 판매가 금지됐다. 최근 정유제품의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정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사석유와 정품 정유제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유사석유란 석유제품에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 첨가물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용제에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전문기술 없이 쉽게 제조가 가능해 탈세 목적으로 불법 유통된다.

석유제품과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섞는 방법, 석유화학제품과 다른 석유화학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섞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가짜휘발유는 휘발유와 시너 등 용제류를 혼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가짜경유의 절반 이상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경우다. 2005년 이후로는 가짜휘발유보다 가짜 경유가 많이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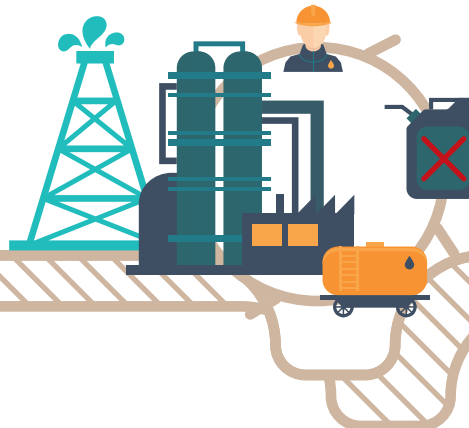
유사석유가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소비자 측면, 환경 측면, 공급자 및 국가세금 측면이다. 먼저 소비자 피해 면에서 보면, 가짜휘발유의 경우 평균 9%, 가짜경유의 경우 평균 7% 정도 연비가 감소하고, 과도한 메탄올·톨루엔 성분이 연료펌프, 연료분사장치 등의 부식을 촉진해 차량 고

장을 유발한다. 또, 운전자가 헝기증, 구토증세를 일으키게 한다.

폭발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엔진 부식으로 인한 연료 누출로 차량폭발 위험이 증가하고 이상연소현상에 따른 폭발 위험성도 상존한다. 유사석유 제조공장·창고·운송차·취급주유소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 면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발생의 문제가 있다. 알데히드 성분의 경우 정품에 비해 평균 약 62%나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유사석유는 전체 소비 유통량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탈루세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품 정유제품 유통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유사석유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다. 유사석유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유사석유임을 알고도 사용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회사가 소방관 부부를 제주로 초청해 달콤한 휴식을 선사했다.
지난 5월 21~23일 2박3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소방관 휴(休) 캠프'에 소방관과 그 배우자 총 140명이 참가해 즐거운 여정을 함께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캠프는 소방영웅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방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방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영웅 자부심 채운 여정

소방관 부부 캠프

DAY 5.21
PM 2:29

01 천 년의 숲 비자림에서의 프리포즈 이벤트

제주명물 먹거리 흑돼지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한 소방관 부부 일행은 천 년의 숲 비자림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부부의날'을 맞아 황문형 소방위의 깜짝 프리포즈 이벤트가 열려 감동을 전했다.



DAY 5.21
PM 3:43

02 '선녀와 나무꾼', 추억 속으로의 여행

추억의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을 방문한 일행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 속 풍경을 되새기며 저마다의 추억을 나눴다.



DAY 5.21
PM 3:43

03 제주 최남단감귤농장 체험

시고 달달한 제주 특산과일 감귤수확 체험을 하러 일행은 최남단감귤농장으로 향했다. 정다운 부부 일행의 입속에서 감귤은 달기만 하다.



DAY 5.21
PM 8:42

04 첫날 밤, 모두가 흥겨웠던 개회식

3일간의 일정 중 첫째 날 밤, 일행은 개회식과 함께 만찬을 즐겼다. 상품을 건 퀴즈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에 적극 참여한 행사의 밤이 깊어갔다.





DAY 5.22
PM 10:17

05 성산일출봉에서 맞은 둘째 날

제주의 눈부신 아침햇살이 행사의 둘째 날을 환히 밝혔다. 성산 일출봉 앞에서 일행은 단체사진을 찍고 봄날을 만끽했다.



DAY 5.22
PM 2:16

06 환상적인 물속 풍경을 관람한 아쿠아플라넷

둘째 날 오후에는 아쿠아플라넷에서 물개쇼와 더불어 거대한 수조 속 해양동물을 관람했다. 아른거리는 물빛에 마치 물속에 들어간 듯한 황홀경을 체험했다.



DAY 5.22
PM 3:41

07 베니스랜드에서 체험한 물의 도시

물의 도시를 재현한 베니스랜드에서 일행은 베니스 특유의 배인 곤돌라에 올랐다. 쌍쌍이 오른 곤돌라 위에서 부부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다.

DAY 5.23
PM 11

08 제주 해변에서 맞는 마지막 바람

셋째 날 오전 서커스월드 관람을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캠프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제주의 해변에서 마지막 제주 바람을 만끽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소방관 부부를 초청한 제주 캠프 일정 중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때마침 두 명의 남녀가 한 쌍이 된다는 '부부의날'(21일)을 맞아 황문형 소방위(창원소방본부) 부부에게
비자림 '사랑의 나무' 앞에서 프러포즈 이벤트를 제공한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 사연에 참석자 모두 잊지 못할 감동을 가슴에 담았다.

내 사랑 영자 씨에게

군 제대 뒤, 병들어 누워계신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리려고 나는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직장이었던 출판사에서 외판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당신 영자 씨를 만났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어머니와 내가 누워계시는 아버지에게 소원해졌을 때도, 당신만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말벗이 돼주고 매일 조식으로 연탄불에 누룽지 미음을 끓여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친부모 이상으로 간병하고 보살펴 준 그 은혜를 난 죽어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유연처럼 내게 남긴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내 가슴에 메아리칩니다.

“이 처자가 심성이 참 착하고 바르니 버리지 말고 잘 살거라.”

어려운 가정형편에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기 낳고 살다보니 늘 마음 한편에 당신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치도 모르고 오로지 절약하고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당신 몰래 이벤트를 신청했습니다. 운 좋게 선정됐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를 어여뻐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피부관리사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관절염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 하는 당신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욱 당신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 근심걱정 하지 말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 내 사랑 영자 씨! 때문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진 당신으로 인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슬기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공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는 날까지 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당신에게서 받은 사랑에 보답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영자 씨!

5월 21일 제주에서

- 황문형 소방위(창원소방본부)



캠프가 끝나고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해 소중한 편지가 날아들었다.

행사에 참가했던 박종태 소방위(대구북부소방서)의 아내 장은희 씨가 고마운 마음을 글로 전해왔다.

소방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고마웠다는 이 사연은 햇살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굳은 심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3회 소방관 휴 캠프에 참가한 대구지역 북부소방서 박종태 씨 아내 장은희입니다.

부부의날 5월 21일부터 2박3일 동안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귀사가 보여준 정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홍보수단인 줄 알았는데, 첫날 저녁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셨던 전무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는 생각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은 다른 직종과 달리 책임감으로 하는 일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귀사의 그런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시도로 소방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생전에 그렇게 많은 소방가족을 만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방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용기 있는 소방관이 많다는 사실에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며 늘 함께 움직이는 내 옆의 소중한 소방관과 소방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민과 내 이웃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그들의 아픈 마음까지 안아주는 귀사의 용기 있는 행보에 늘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그날 참석했던 70쌍의 소방가족은 영원토록 귀사의 선물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귀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은희(대구북부소방서 박종태 소방관 아내)

마음으로 보여준
소방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동심에 꿈 선물한 뮤지컬 나눔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가족뮤지컬 공연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사진 디자인소호

5월 28일 본사 대강당에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온 어린이들은 공간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병아리 합창 마냥 목청을 높입니다. 이날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공연으로 저녁시간에 본사 대강당이 개방된 가운데,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통제가 쉽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나설 엄두를 내기 어려운 부모들은 이날 뮤지컬이 특히 반갑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으로서 공연장을 찾은

우리회사는 2011년 6월 본사 신사옥 입주와 함께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와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나눔캠페인'을 선포했습니다. 본사 공간을 무료 공연 무대로 개방하고, 공연예술단체 후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악·오페라·밴드 등 뮤지션은 물론 인형극·마술쇼·퓨전 타악·코미디언 퍼포먼스 등 예술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정례화한 결과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전신청을 통해 객석을 배정해야 할 정도로 관객이 늘었습니다. 이날 공연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아 무료 배부

한 350개 좌석표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넌 특별하단다'는 미국 동화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원작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입니다. 실수투성이 꼬마 주인공 '편치'가 잘난척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왕별대회'에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목수 할아버지 '엘리'를 만나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어린이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일깨우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어린이 관객을 심분 고려해 객석의 절반가량을 두툼한 바닥 매트로 채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인용 좌석에 앉을 경우 무대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런 배려로 공연 분위기는 한층 정겨워졌습니다. 또래들과 나란히 앞좌석을 차지한 어린이 관객들은 인방처럼 편안한 자세로 무대에 집중하며 배우들의 호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회사는 문화예술&나눔캠페인 무료 공연을 지속하면서, 마포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본사 사옥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초여름 저녁 정취를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공연과 함께 즐기세요!

문화예술&나눔캠페인 무료 공연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6월 무대에는 가수 박학기 씨가 초대된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좌석 티켓은 사전예약 신청으로 무료 배부합니다.

일시 | 2015년 6월 25일 저녁 7시 30분 내용 | 포크 뮤지션 박학기 콘서트
문의 | 원유진(운영지원팀) 02)3772-5064



Aromatics생산2부 울산참사랑의집 장애인 도예활동

글 김봉기(Aromatics생산공장)



Aromatics생산2부 봉사단이 5월 13일 정신지체장애인과 손을 모아 도예활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Aromatics생산2부 봉사단은 울산참사랑의집과 인연을 지속하며 장애인들의 여가와 재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택한 도예는 흙을 빚는 과정에서 손의 작은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어엿하게 완성된 작품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도 바람직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끝에 탄생한 작품은 바로 수저통입니다. 조금은 느리고, 만듦새가 투박해도 서로 도와가며 내놓은 수저통이 볼수록 마음에 듭니다.

계전부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동행 수영강습

글 권영규(전기과)

계전부 봉사단이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나는야 건강지킴이'를 주제로 수영을 익히기 가운데, 지난달에는 '균형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 중 하나를 배워나갔습니다.

수영 수업은 기판 잡고 나아가기, 바둑돌 집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님의 지도와 봉사단의 밀착 보호 아래 물속을 휘젓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졌습니다. 올해 계전부 봉사단의 활동을 마무리할 즈음 아이들 모두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사진동호회 희귀질환어린이 가족 사진촬영

글 박용원(네트워크개발팀)

본사 사진동호회가 담도폐쇄증 환자 가족을 위한 사진촬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5월 16일 정윤하 아기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촬영에서 윤하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지난 시름을 잊었습니다.

사진동호회는 회사가 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희귀질환 담도폐쇄증 어린이를 위해 재능기부 형태로 가족사진을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윤하와 가족들은 가족이 똑같이 맞춰 입을 수 있는 복장을 비롯해 가족 앨범과 액자, DVD로 만든 사진기록, 구도일 인형 등을 선물 받았습니다.



생산지원부문 문수실버복지관 어르신 공예활동

글 김순창(총무과)

생산지원부문 봉사단이 문수실버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공예교실을 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과 봉사단원들이 함께 웃고 즐기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바느질 솜씨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봉사단의 적극적인 보조로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봉사단은 어르신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복지관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즐거운 활동으로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신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후원금 전달

우리회사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5월 13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서울시 종로구 종로)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이창재 부사장은 한국여성센터장과 만나 후원금을 전하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심리 안정과 사회 복귀에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자립할 때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한편 이주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통·번역 전문상담 활동에 후원에 활용된다.

우리회사는 2013년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28가정 68명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4천322건의 통·번역 상담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도왔다.

글 한윤철(운영지원팀)



영천저유소 지역 경로당 지원

영천저유소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경로당 지원에 나섰다. 신동일 저유소장은 5월 8일 사리2리(경북 영천시 대창면) 경로당에서 마을이장과 경로회장을 비롯한 마을주민과 만나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과 난방, 경로잔치 등에 쓰인다.

영천저유소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인근 주민들과 상생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글 김용경(영천저유소)



느티나무 그늘처럼

넉넉한 사랑나눔

동기회 नेपाल 지진 피해복구 기부

글 이해준(안전과)



2 0 년 키 운 느 티 나 무 시 원 한 그늘 밑 에 서 아 품 잇 기 를 ...

‘느티나무’ 동기회는 1995년 입사한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느티나무처럼 서로 베풀고 보듬자며 붙인 이름입니다. 320명으로 시작한 동기모임은 세월이 흘러 현재 243명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인원 탓에 다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입사 20주년을 맞아 근무조별로 모임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नेपाल 지진참사로 실의에 빠진 지구촌 가족에게 힘을 주고 회사가 지속하는 나눔활동에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우리 모임의 총무가 기부처로 인연을 맺고 있는 ‘월드비전’에 느티나무 이름으로 729만 원을 전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만난 동기들과 한 길을 걸어온 20년 동안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입사한 그해, 그리고 이듬해에 고인이 된 동기로 인해 충격과 안타까움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지사와 저류소에게까지 동기들이 포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안에서 우리 동기들이 큰 배려심을 키워가면서 모임 이름처럼 느티나무 아래 항상 같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은 세월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함께 행복한 퇴직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신뢰로 뭉친
한가족

서포터즈를
환영합니다

S-OIL서포터즈 공장 견학

글 주응선(네트워크강화팀)

우리회사를 향한 애정과 제품에 대한 신뢰로 뭉뚱 뭉친 'S-OIL서포터즈'가 5월 30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너스카드 우수고객 중 1천500명이 동참한 가운데 운영되는 서포터즈는 계열주유소 서비스와 시설을 점검하고 마케팅 관련 제안, 구전(Viral) 홍보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날 공장을 방문한 서포터즈는 그 가족을 포함해 약 100명으로, 공장 견학과 태화루·간절곶 등 울산 명소 방문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하며 회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조운성 서포터(대구시 북구 서변로)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들과 이렇다 할 여행 한 번 다닌 적이 없어 늘 미안했는데, 서포터즈 자격으로 공장 견학에 초대해주신 덕에 모처럼 아빠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에스-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계열이라는 사실,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정유 기술과 시설로 세계 최고에 올라서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울산역 기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나오는 에스컬레이터 정면에 에스-오일 광고판이 정말 반가웠고, 공장 투어 중 꼼꼼하게 설명해주신 담당자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울산에 동생이 살고 있어도 이번에 처음 간절곶에 가 보게 돼 좋았습니다. 에스-오일이 공사비 전액을 기부해서 복원한 태화루까지 보고 나니, 정말 알찬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성실히 이끌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에스-오일 주유소를 가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서상민 서포터(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공장 견학 잘 다녀왔어요. 알차게 보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맛난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다고 하네요. 에스-오일에 대한 다양한 설명, 공장 투어, 점심식사 그리고 사진촬영까지 서포터즈로서 공장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지유진 서포터(울산시 중구 산전길)

울산에 거주하는 저로서도 공장과 그 일대는 다닌 적이 없어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영상 관람과 자세한 설명이 수반된 공장 투어, 예쁘게 마련해 주신 식사자리와 기념촬영에 이어 간절곶에서 만끽한 시원한 바닷바람, 울산의 대표공원이 있는 태화루와 십리대밭까지!

오가는 길에 차가 막혀 행여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지지 못할까 봐 애쓰신 담당자 분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짧은 만남 뒤 서포터즈들을 떠나보내는 제 마음은 명절날 가족을 맞이했다가 배웅하는 서운함이었다고 할까요? 무척 아쉬웠습니다.

에스-오일이 서포터즈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번 견학을 계기로 에스-오일에 대한 애정을 품게 됐고, 서포터즈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열정 24시

열정으로 회사의 앞날을 밝히는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세계 최고 윤활기유 공급

오늘도 전진하겠습니다

윤활기술팀 윤계상 사우

26년 윤활기술 스페셜리스트

윤활기술팀은 윤활유 제조 배합식을 개발하고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는 부서입니다. 자회사로 분리했던 업무를 얼마 전 다시 인계받아 완제품을 수출하는 초기단계에 와있습니다.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08년부터 자체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윤활유를 현대기아자동차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국내수요의 약 34%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근무한 지 만 26년이 넘었는데요. 입사 직후 공장에서 근무했던 2년 반을 제외하면 오로지 윤활기술 관련 업무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나만의 보람과 긍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새 기회를 여는 무한한 가능성

윤활유 부문은 기술 집약 분야라는 면에서 회사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큼니다. 반면 첨가제, 기유, 각종 기계 설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종합적으로 필요해 관련 업무를 배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후배들을 잘 이끌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윤활기술팀'이 되도록 하고 싶고, 더 나아가 우리회사가 세계 최고의 윤활유 공급기업이 되도록 기여하면서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싶습니다.

· CEO 표창

·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윤활유 개발 업무추진 및
기유판매 기여, 윤활기술 부문 전문인력 양성



소통 활성화로 더 나은 성과 일구고 싶습니다

기획분석팀 정수환 사우

소통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기획분석팀은 공장의 전략수립 및 예산, 성과,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운영총괄 내의 부서뿐만 아니라 본사 관련부서와 많은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입장이 다른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사고력과 세부 분석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희 팀원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활기차게 업무에 임하고 있어 거뜬히 각자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입사 7년차로서, 선·후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운영효율을 향한 도전

작년 외부경영환경 악화로 회사 긴축경영 시행이 결정됐을 때 '어떻게 하면 목표를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용절감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Think Twice'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건 저희 부서 팀원과 현장, 공정부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적극 실천해주시고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노력을 전개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을 달성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CEO 표창

· 전사적 예산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긴축예산
성공적 관리 및 'Think Twice' 캠페인 주도적 전개



전국 주유소를 찾아
성공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지어진 지 14년 된 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말끔한 외관, '남양주 깨끗한 화장실'에 선정될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는 화장실, 최고급 자동세차기와 10여 기 이상의 셀프 에어브러시, 보는 이들 모두가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드는 충전소 곳곳의 꽃 화분까지 광전충전소는 매일 새로워지고 있다.

충전소 운영의 롤모델 되립니다

남양주 광전충전소

김용원 대표 미니 인터뷰



광전충전소는?

서울에서 경기 북동부 방향으로 가는 43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충전소로 10여 명 직원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깨끗한 충전소, 정직한 충전소, 보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충전소를 지향합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38
- 031)529-3161

목표와 포부는?

저는 고객과 더불어 직원 역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직원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데 충전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했겠죠. 이분들과 건강하게 함께하며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친절과 청결, 자신 있습니다!

2004년 5월, 김용원 대표는 설립된 지 2년 된 광전충전소를 인수해 운영을 시작했다. 정유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삼십 대 초반에 충전소와 인연을 맺고 넘치는 열정으로 충전소를 운영해나갔다. 작은 부분까지도 충전소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손수 청소를 하고, 충전소 앞 화단에는 꽃을 가꿨다.

그로부터 만 11년이 지났다. 비록 신체의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의 나이는 세월을 타지 않았다.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챔피언스클럽 선정도, 남양주 깨끗한 화장실 선정도 꾸준한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곧 사무실 공간을 확장해서 보다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들려 합니다. 직원과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 샤워실도 늘리고요.”

김용원 대표는 곳곳에 걸린 꽃 화분장식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 도시는 삭막하잖아요. 시멘트를 보고 매연을 마시는 사람들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청소는 제가 할 때도 있고 직원이 할 때도 있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충전하러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충전소'가 광전충전소의 가치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충전소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10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애정을 갖고 일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가끔씩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애씁니다.”

김용원 대표는 직원의 근무년수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한다. 어딜 가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이후에도 굶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오래 근무하시다 환갑, 칠순을 맞는 직원에게는 해외여행 비행기 표값을 지원했다. 애정을 갖고 근속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대표이고 주인이라는 생각에서다.

광전충전소를 둘러보면 구석구석 즐거움이 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직원은 고객 휴게실에 벽화를 그려 보는 이를 웃게 만든다. 텃밭에는 상추나 배추를 심어 직원들이 먹고 고객께도 드린다. 충전소 내 정자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쉬는 고객도 다수다.

나대지에 위치해 주변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적지 않은데 이 동물들에게 먹을 거리도 준다. 유난히 따르던 유기견 한 마리는 결국 '광전'이라는 이름으로 충전소의 한 식구가 됐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식구들이 늘 신경 써서 관리하기 때문에 광전충전소는 매일 닭아 미끈한 나무마루처럼 광채가 난다. 광전충전소 식구들은 즐겁게, 오랫동안 함께할 것이다.



왼쪽부터 서원석 · 이인걸 · 장수광 · 박은서 총전원,
김용원 대표

가족 이야기
사우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세월 가도 변함없는 올곧은 사랑

수소3과 최용관 사우 가족

올해 4월 10일은 최용관 사우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결혼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생겼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어졌다.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해
최용관 사우의 가족이 사보 이벤트의 문을 두드렸다.





아내가 가족에게 여보~, 윤아, 성우야.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좀 더 환한 모습, 예쁜 목소리로 다가가도록 할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보다 더 많이 사랑해!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면서 지내자.

윤이가 부모님께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과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 않을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비 오는 날 결혼해 10년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식당이 떠들썩해지더니 예약된 객실로 최용관 사우의 아내 이우전 씨와 두 아들 최윤·최성우 군이 들어온다. 네 식구의 홍일점인 아내는 장난꾸러기 두 아이를 능숙하게 달래고 열려 의자에 앉게 한다. 주차하고 조금 늦게 들어선 최용관 사우는 말없는 미소로 가족을 바라본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잘 웃어주고 답변도 잘해줘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입니다.”

사우의 아내는 지난달이 결혼 10주년이었다며 이벤트를 기꺼워했다.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도 생각해봤지만 남자 셋이 워낙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도전하지 못했었는데, 식사 이벤트를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이벤트 날을 기다렸다.

“10년 전 그 날이 생각나요. 저희 결혼식 때 비가 많이 왔어요. 하객이 적을까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더 행복했던 날입니다. 결혼식 날 비가 많이 오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요.”

우리 식구는 카멜레온이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조금 늦게 식사가 나왔다. 사우는 아내와 눈을 맞추기도 하고, 두 아이들의 움직임을 순간순간 살피면서도 묵묵히 고기를 구웠다.

“조용해 보여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남편이랍니다. 첫째 아이와는 바둑을 두고요, 바둑판을 앞에 두면 바둑을 두기보다 알까기를 더 많이 하지만요. 윤이와 성우도 이렇게 활발한 때도 있지만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착하게 지내주고 있어요. 첫째 성우는 어느새 훌쩍 커서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요. 딸 없는 집에서 둘째 성우는 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노래, 춤, 애교까지 만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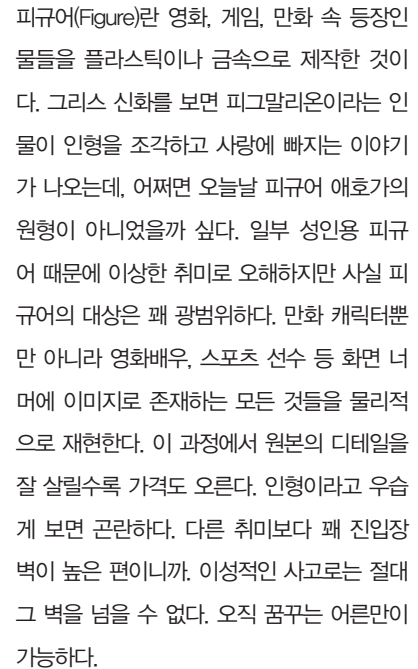
아내의 소개처럼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가족이었다.

“첫째가 무슨 이유인지 호주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1년 안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식구들 더 돈독해지겠죠?”

사우 가족의 장기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금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까지 포함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금처럼 지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생각이다. 거기에 더해 짧은 기간의 목표로 사우는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여행이 끝나고 나면 사우의 두 아이는 보다 자라고, 가족은 보다 단단하게 서로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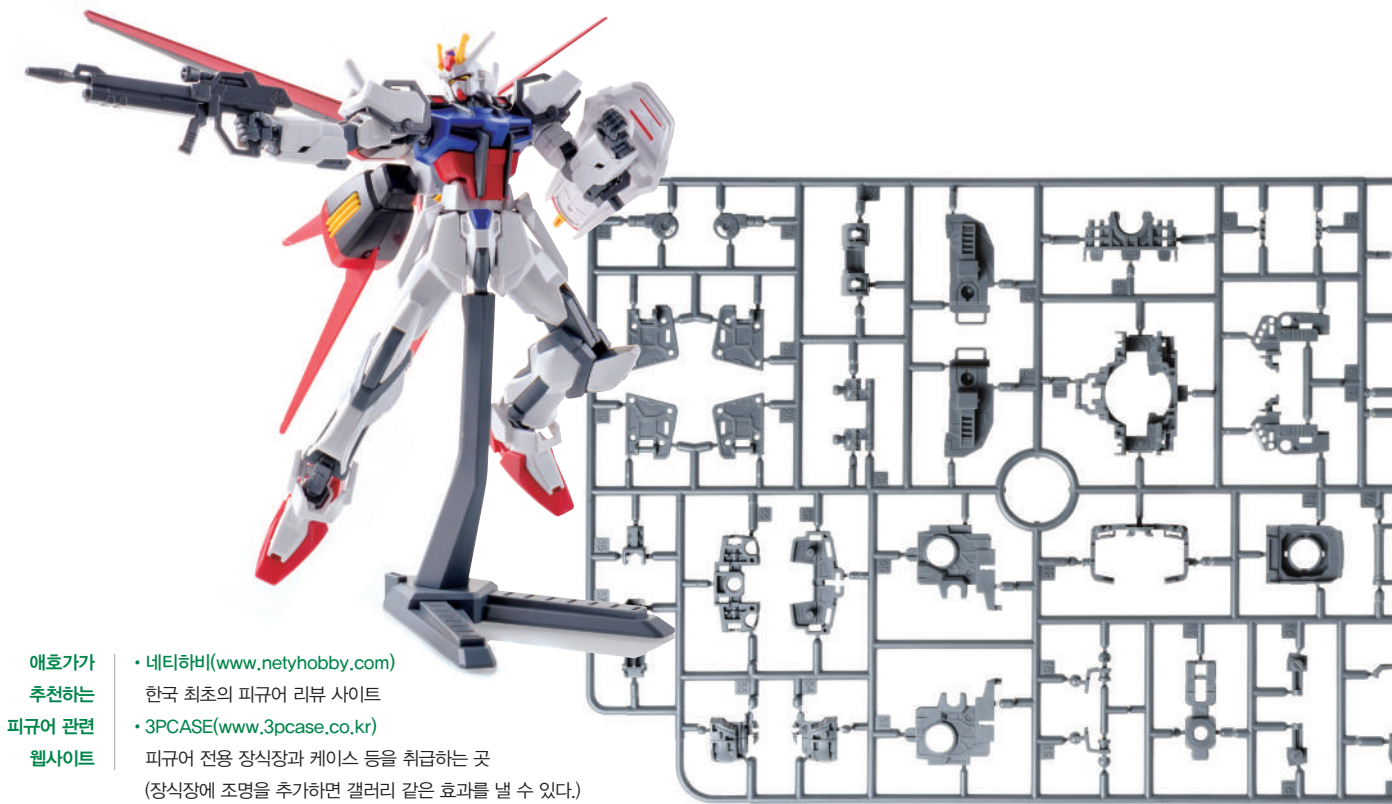
아빠가 가족에게 사랑하는 부인. 넷만 모여서 식사하기가 어려웠잖아?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 이벤트를 신청했어. 우리 결혼 10주년을 자축하는 의미로. 경상도 남자라 무뎅뎅한데도 항상 챙겨주고 아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윤이와 성우, 남자아이들이라 험하게 놀다가 다치기도 하는데,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



어른들의 장난감

원래 장난감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꿈을 키운다. 바쁜 현실 속에서 어른들은 점점 장난감에서 멀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장난감에 심취한 어른들이 있다. 누군가는 이 새로운 소비자를 ‘키덜트’라 부르고, 누군가는 이 철없는 어른들을 ‘오타쿠’라 부른다.

유년시절에 즐기던 장난감, 만화, 의복 등에 향수를 느껴 다시 찾는 성인 계층을 이른다.



애호가
추천하는
피규어 관련
웹사이트

- 네티하비(www.netyhobby.com)
한국 최초의 피규어 리뷰 사이트
- 3PCASE(www.3pcase.co.kr)
피규어 전용 장식장과 케이스 등을 취급하는 곳
(장식장에 조명을 추가하면 갤러리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1

피규어 즐기는 방법 **소득수준에 맞게 구매하라**

수집욕과 눈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규어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원형사), 캐릭터, 희소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주문생산이나 한정생산 제품은 시기를 놓치면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적당한 품질의 제품들을 선별해서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량생산된 제품들이 아무래도 품질 대비 저렴한 편이다. 중고거래도 활발한 편이니 커뮤니티를 통해 발품을 팔면 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도 있다.

2

피규어 즐기는 방법 **전시공간을 마련하라**

이 취미는 결국 공간과의 싸움이다. 처음에는 책상이나 선반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소장품이 하나 둘 모일수록 보관 문제가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피규어를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여유로운 수집과 감상이 가능하다. 집안에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장식장을 찾는다.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방안의 먼지로부터 소중한 피규어들을 지킬 수 있다. 다소 비용 부담이 크지만 피규어 전용 장식장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

3

피규어 즐기는 방법 **원작과 함께 즐겨라**

피규어의 가치는 캐릭터의 매력에서 시작된다. 다양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감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짚어두면 수집 과정이 훨씬 즐거워진다. 캐릭터의 팬으로서 원작을 더 풍부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피규어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집한 피규어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다. 피규어를 촬영해서 자막을 넣으면 꽤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

친환경 현대미술 기획전시로 특화한 양평군립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은 서울에서 차로 채 1시간이 안 돼 도착할 수 있는 지역미술관이다. 게다가 남한강자전거길 코스 확인 도장을 찍는 곳이 미술관 바로 뒤에 있어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옆을 지나간 적이 있거나 들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들이 중에 큰 준비 없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미술관이라는 점이 양평군립미술관 접근성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해외 미술관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미술관에 방문하기가 과거보다 수월해졌고 관람객의 눈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전시의 질과 서비스 품질로 인해 양평군립미술관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는 예술? 즐기는 미술!

양평군립미술관

양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이 근교로 나들이에 나설 때 방문하기 좋은 지역이다. 서울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았는데 공기도 상쾌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다. 양평군립미술관은 '가족미술관'을 지향하고, 어린이가 동행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전시를 기획한다.



전시의 질을 높이고 지역성과 연계하는 방편으로 양평군립미술관은 '친환경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선택했다. 1년에 약 열 가지의 기획전시가 진행되는 데 물 맑고 산이 수려한 양평의 계절을 테마로 진행되는 미술여행 시리즈와 가정의 달 프로젝트, 2회의 야외 설치미술 전시, 등록예술가 700명을 포함해 1천 명이 넘는 지역작가를 고려한 지역 원로작가 전시 등이 있다.

자연이 이끌어내는 맑은 감성에 끌려 작업공간으로 양평을 택한 작가들 덕분에 지역미술의 수준은 점차로 높아져 지역작가 안에서 작품을 구해도 작품의 질은 확보가 될 정도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전시를 위해서 소속 직원들이 전국으로 발품을 팔고, 엄선한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해마다 20여 점 소장한다. 전시 외에도 음악회, 뮤지컬 공연, 매직 쇼 등의 프로그램을 곁들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대표번호	031)775-8515(3)
관람안내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입장료	일반 1천 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이형욱 학예연구실장이 전하는 깨알정보

- 하루를 비워주세요. 양평에는 양평곤충박물관, 들꽃수목원,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세미나원, 용문산 등 미술관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팔당대교부터 시작하는 남한강자전거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양평군립미술관이 있습니다.
- 어린이와 함께 오세요. 가족을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더불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 교육 심리평가를 받아보세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색채심리 전문 지도강사가 무료로 진단하고 조언해드립니다.

지역미술관, 참여하는 '가족미술관'을 꿈꾸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미술이라는 미술관 본연의 콘텐츠가 확보돼야 문화 향유권도 논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점차 기획의 전문성을 확대했다. 현재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양평군립미술관 실내에 처음 들어서면 놀라운 공간이 하나 보인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키디룸'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전시 관람 전후로 어린이들이 놀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 어른들이 여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도 있다.

특히 참여하는 미술관을 표방하고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그리지 않고 표현'한다. 이 차이가 어린이들에게 창작의 희열을 가져다주고 사회성을 계발하게 하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이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어른들의 경우, 이전에 미처 몰랐던 섬세함을 발견하기도 한다.

전시를 보고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도 양평군립미술관의 특징이다. 올해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 '미술사 놀이', 돋보기를 들고 미술작품을 꼼꼼히 살피는 '미술 관람탐험대'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인기가

섬을 걷다

아름다운 섬이 품은 길을
찾아 갑니다

글 · 사진 전부순

인천시 서구 서쪽 끝에
있으면서 존재감이 없어
보이던 세어도(細於島)가
요즘 길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둘레길이 환상적이란
입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서쪽에서 머물다'란
서유(西留)에서 파생되어
세루섬 · 시루섬이란
별칭 외에 농어가 많이
잡혀 농어섬이라 불렀고,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서쪽에 떨어져 있는 섬'
서천도(西遷島)로 등재됐다.

청라-김포 간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정서진선착장은 150m쯤 되는 가교 끝에 뜬 부두다. 여기서 2008년
부터 운항한 20인승 정서진호(21t)를 타면 10분이 채 안돼 길고 가늘게 늘어진 세어도에 닿는다. 육지와
거리는 불과 1km, 코앞에 마주하면서도 정기 배편이 없어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섬', '도시 속의 오지'이
다. 행정구역으로 원창동 353번지 일원의 면적 40만 8천㎡(12만 평), 26가구 36명이 주로 농어 · 우럭 ·
숭어 · 새우잡이에 종사하나, 육지와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아 실제 거주민은 20여 명 안팎이다.

이 섬에 가려면 먼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에서 배편을 확인한다. 무료로 운항하는 관
공선이 물때에 따라 정서진선착장(일 2회 왕복)과 만석부두(일 1회 왕복)로 나뉘어 다니기 때문이다. 정
서진선착장에서는 오전 11:30에 섬에 들어가서 16:00에 물으로 나오고, 만석부두에서는 입출항 시간이
매일 다르다. 특히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하고, 출항 20분 전에 도착해야 입도할 수 있다.

배낭 하나 메고 단출하게 길을 나선 사람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 2백 살 먹은 고로쇠나무와 출어기에
풍어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는 '김치지 나무', 섬마을의 고즈넉한 고샅길에 위치한 마을회
관 앞 추정수령 150년의 고욤나무가 풍성한 녹음으로 그들을 드리워 길손들을 반긴다.

폐교된 송현초등학교 세어분교 자리에 들어선 마을회관 마당에는 '역발상공화국 중앙청'이란 표지목이
서있다. 지역 관광명소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 '상
상나라국가연합'을 만들었다. 인천 서구는 서해안관광중심지를 구축한다는 역발상으로 세어도에 '중앙
청'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둘레길과 갯벌체험장은 이 결과로 생겨났는데 개발보다는 자연생태를 그
대로 보존하는 힐링 관광지를 추구하고 있다.

왼쪽 '해님이 전망대'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세어산 허리를 감싼 길은 그 자체가 고요함이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없어 섬 전체가 조용하고 한적하여 마음 다스리기에 그만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
리는 낙엽 밟는 소리와 새소리가 길손의 무딘 청각을 일깨운다.

봄의 향연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름다운 생명들을 만난 반가움에 잠시 걸음을 멈춘다. 숲 속 길옆에
는 키가 작다는 접두사 '각시'가 붙은 각시붓꽃이 꾸미지 않은 새색시의 수줍음처럼 가녀린 꽃잎을 소소
히 떨고 있다. 산란초(山蘭草, Iris rossii)로 불리며, 10~15cm 키에 잎은 칼집 모양, 봄에 낙엽이나 검목 속
에서 줄기 끝에 자주색이나 흰색 꽃을 피우고, 작은 공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바람 따라 걸으며

고독한 평화 노래하는

'도시 속 오지'

인천 세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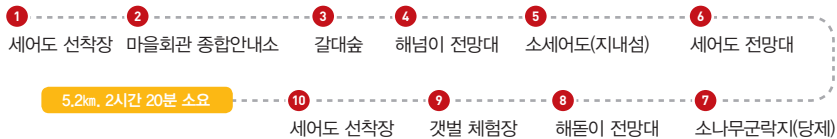
바닷물이 빠져나간 소세어도, 일명 지내섬 전경





〈세어도 트래킹 코스〉

TIP.



대중교통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1번 출구 77-2 버스 승차, 세어도선착장 하차.
내비게이션은 '세어도 선착장'이나 '인천시 서구 세어로 29'를 찍는다.

선박문의 서구청 재무과 032)560-4161, 선장 010-5385-5140

세어도 여촌체험마을 문의 여촌계 010-3366-3546

포근하고 경쾌한 걸음새로 길손의 이동본능을 충실히 이행한다. 사람 체취가 스민 넓고 허름한 집을 스쳐 지나며 '길을 걷는다'는 한 자어 도보를 떠올린다. '도(道)'는 길을 뜻하고 '보(步)'는 그칠 지(止)와 적을 소(少)의 합자이다. '멈출 줄 알면 족함을 안다'는 삼지(三知)를 깨닫는 상태이니, 족함을 알고[知足], 분수를 알고[知分], 그칠 줄 안다[知止]는 것과 나면서부터 알고[生知], 배워서 알며[學知], 애써서 안다[困知]는 뜻을 함유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걷는 것'이라는 허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이제는 불문가지다.

갈대밭 옆에 동그마니 놓인 작은 건물, 손으로 직접 써 붙인 '변소' 팻말, 폐가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세어도 땅'이라 서툴게 쓴 간판마저 정겹게 와 닿는다. 이마에 땀이 송알 송알 맺힐 무렵 갯벌과 맞닿은 갈대밭의 마른 수풀이 바람에 날려와 고독한 평화의 노래를 들려준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 삶의 품위를 넓히고,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은 정녕 걷는 속도와 비례하는 '느림의 미학'이다.





정서진호가 세어도 선착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물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세어도에 가려면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운항표를 확인해야 한다.



탐방객이 마을을 향해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나무 데크로 된 산길로 접어들어 '해님이 전망대'를 지나면 허허로운 갯벌 속에 진주처럼 박혀있는 소세어도, 일명 지내섬이 나타난다. 마침 썰물이라 곰삭은 갯벌에 가지런히 돌을 쌓아 만든 투박한 길이 오히려 천연덕스럽고 정교하게 느껴진다. 머리에 소나무를 이고 있어 갯바위 같은 지내섬, 정자와 함께 있는 전망대가 길손의 다리힘을 도와준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더 창의적인 행동과 생각을 한다'고 한다.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잃는 방법이 걷기라 한다면, 산천유람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오랜 세월, 육지 중심에서 비롯된 생각이기에 우리 몸과 마음은 물론 눈까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가늠치 못한다. 반면에 섬에서는 우리가 넓은 바다의 주인공임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내섬을 나와 숲을 가로질러 북쪽 논개(섬끝)에 있는 '세어도 전망대'에 오르면 섬과 섬 사이에 바다는 없고 엄청난 규모의 갯벌이 끝을 이루며 낮선 풍경을 연출한다. 강화도 남단까지 펼쳐진 동막갯벌은 백중사리를 제외하곤 바닷물이 채우지 못할 만큼 광활하다. 겹겹이 쌓인 잿빛 풍요로움은 해상의 영양창고로서 수많은 바다생명을 품고 아우른, 이른바 세계 3대 갯벌 중 하나로 손색없다. 한 폭의 그림처럼 세어도에 그려진 버룻길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룬 아늑한 길로 이어간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굵이굵이 돌고 돌아 예전 당제를 지냈던 소나무군락지, 푸른 솔이끼가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넘치는 당제마루턱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다.

당제는 매년 정월에 날을 잡아 마을과 가정의 안녕과 평안, 풍어를 기원했다. 흙담에 짚을 올린 당집에는 향아리와 삼신(신령) 초상을 걸어놓고, 샘에서 길어온 맑은 물로 술과 떡을 빚어, 소를 잡아 제를 올렸다. 제물로 소를 바친 이유는 섬이 동서로 길게 뻗어 뱀과 비숫해서 뱀의 천적인 돼지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동젓날을 정하면 부정한 행위는 물론 외지인 방문과 주민의 육지 출입을 금하고, 언행행실을 자중하며 제수를 준비했다. 동제 전날 당집 접시에 기름을 부어 불을 밝혔다. 동젓날 이 불이 꺼지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으므로 매우 조심했다. 당집이 있던 고갯마루는 신성시하여 소나무는 손을 대지 않았고, 아이들 접근까지 막았다.

해안을 접한 갈대숲길은 자체가 고요하고 한적하여 마음 다스리기에 그만이다.



멀고도 가까운 섬 세어도는 둘레길을 정비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한 결과 백패킹족을 중심으로 '나만의 캠핑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삶을 쫓아 육지로 나가면서 당집이 없어졌고 마을공동체였던 동제는 중단됐다. 사람이 떠나는 건 근대화를 겪으며 피할 수 없는 고향의 운명이지만, 그래도 전통의 단절은 마냥 아쉽다.

해돋이 전망대를 거쳐 다시 돌아온 마을은 1970년대에 시간이 멈춘 듯하다. 변하지 않은 모습에서 향수를 느끼는 것인가. 붉은 페인트로 '세어도 식당'이라 쓴 조립식 건물은 문이 닫혔다. 대신 6월부터 문을 연다는 쪽지가 붙어있어, 어떤 식당으로 길손들을 맞이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세어도는 늘 물이 부족했다. 지금은 관정을 뚫어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했지만, 이전에는 막개(섬 중앙) 언저리에 저수지를 만들어 저장한 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전깃불도 해저케이블 설치가 완료된 2007년에야 정식으로 들어왔다. 부족함을 모르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문화 결핍이 지속된 저간의 일들이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세어도에는 지금도 편의시설인 슈퍼마켓, 식당, 민박집이 없다. 길손들은 스스로 물부터 먹을거리,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섬이란 지형학적 특성 때문에 화장실을 비롯해서 물과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손님을 위해 예약자에 한해 마을회관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어귀에서 오른쪽 해변가로 내려가면 갯벌체험장이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학습장과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 검은머리물떼새와 중부리도요새가 서식하는 이곳은 농어의 코고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농어의 텃밭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가 들어서면서 바다환경이 변하여 바지락은 숨었고, 아라뱃길 공사 후유증으로 농어잡이는 예전만 못하단다. 7~9월 기름기가 잘잘 흘러 가장 맛이 산다는 성수기 농어, 산란기인 늦가을에 '뽕뽕' 소리 지르는 날랜 몸놀림도 이제 기억



광활함을 자랑하는 동막갯벌. 산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추억은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 아련한 감흥을 자아낸다.



세어도 남쪽 갯벌체험장 방향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를 마주하고 있다. 섬은 숙명적으로 외롭지만 세어도는 외로움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힐링의 보고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속에 묻히려네!

4시간을 섬에서 보냈으니 이제 물으로 나가야 할 시간, 마을 언덕 정자에 앉아 배를 기다린다. 순간 자신을 어촌계장이라 밝힌 김오현 씨가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둘레길을 걸으면서 쉬기에는 좋지만, 불편함도 많지요? 다음 달(6월)부터 손님들을 위해 ‘먹거리 체험 행사’를 열 예정이니 꼭 오시라”며 인사를 건넨다. “이곳에서 잡은 자연산 농어를 비롯해 갯가지 횡감으로 초밥과 회덮밥을 만들어 섬에 오시는 손님들께 제공할 것”이라며 “이미 대학의 식품관련 교수들을 초빙하여 시식회까지 성공리에 마쳤다”는 김 계장은 맛을 자신하며 “오시기 전에 예약은 필수”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린벨트의 마지막노선이 섬이다. 세어도는 불편한 뱃길 때문에 오히려 북반은 청정지역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낙도(落島)에서 벗어나 낭만과 힐링, 소중한 추억과 자연의 맛까지 즐길 수 있는 낙도(樂島)로의 변신을 꾀하는 중이다.

사람의 자세는 무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눕거나 앉은 자세일 경우에는 몸무게 하중이 집중되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신체 이외의 무게가 더해질 때는 일반적인 신체유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흔히 메는 가방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건을 가지고 다닐 때 우리는 흔히 가방을 쓴다. 회사원은 서류가방을, 학생은 책가방을, 여성들은 핸드백을 쓰고 상황에 따라 쇼핑백이나 여행용 캐리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가방을 살 때 우리는 꽤 신중하게 고르곤 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일상적이기 때문인지 들거나 메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지 않고 있다.

가방 메는 습관에 따라 신체 균형이 바뀐다

가방의 종류와 메는 습관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신체부위는 척추와 발, 팔이다. 가방을 메거나 드는 방법에 따라 백팩류, 숄더백류, 핸드백류로 분류하는데, 백팩류는 척추와 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숄더백류는 척추에, 핸드백류는 척추와 팔과 관계 있다.

중심이 맞는 가방으로

경쾌한 발걸음

가방 메는 자세 습관



[끈 길이 조절의 바른 예]

양 끈의 길이를 똑같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팩은 책가방이 대표적인데 대체로 많은 짐을 손쉽게 갖고 다니기 위해 사용한다. 양 어깨에 짊어지는 형태여

서 가장 안정적이지만 많은 무게의 짐을 넣고 다닌다는 사용목적 때문에 가장 많은 하중 영향을 받는다. 과도한 무게일 경우 특히 발 건강에 치명적인데 심할 경우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몸무게의 5% 이내의 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다. 몸무게의 10%가 넘는 무게라면 척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 중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장 안정적이라는 백팩의 경우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끈 길이가 다를 경우 크로스백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한쪽 어깨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되면 척추측만증의 위험이 있다. 끈 길이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등에 바짝 메느냐 엉덩이 아래까지 늘어 메느냐 하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줄을 너무 짧게 해 가방이 몸에 밀착하면 어깨의 근육이 압박을 받게 된다. 반대로 너무 길게 늘어진 상태로 가방이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추와 허리 근육에 스트레스를 준다. 가방의 밑부분이 골반 정도에 위치하도록 조절하는 게 좋다.

백팩과 비교했을 때 솔더백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솔더백 중에서도 대각선으로 걸쳐 메는 크로스백의 경우 사정이 나운데, 무게중심이 비교적 몸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무게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크로스백은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한편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두고메는 어깨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핸드백은 서류가방과 여성용 핸드백이 대표적이다.



[끈 길이 조절의 나쁜 예]

주로 한쪽 팔이나 손으로 들기 마련인데, 몸밖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세 건강에는 가장 좋지 않다. 특히

많은 짐을 넣게 되는 서류가방을 드는 사람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듯 가방을 메는 습관도 건강을 해치거나 지키게 할 수 있다.

가방을 잘 이용하면 몸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한편, 가방을 잘 이용하면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특히 백팩류를 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적당한 무게의 가방을 양 끈 길이를 잘 맞춰 메고 다니면 신체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다. 잘 조절한 끈 길이의 백팩을 뗄 때 한 쪽 어깨가 불편하다면 척추가 휘었다는 말이다. 불편하더라도 백팩을 꾸준히 메고 다니면 흰 척추의 교정 효과가 있다. 또 구부정한 허리를 바로 세우는 역할도 한다.

솔더백류도 마찬가지다. 척추측만증이 있는 환자라면 특정 어깨로 가방을 메는 것이 편하겠지만 이때 불편하더라도 반대쪽으로 가방을 메거나 들어보자. 불편함을 이겨내고 꾸준히 메고 다닌다면 어느 정도 자세를 교정하고 척추측만증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로, 가방의 소재는 너무 유연하지 않은 게 좋다. 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또 가방 밑바닥에 깔개가 있어 내용물이 쳐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좋다. 가방끈은 쿠션감이 있어서 접촉 부위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



가방 끈 길이를 길게 조절해 백팩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크로스백을 몸의 무게 중심에 맞춰 메는 자세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좋은 편이다.



백팩이나 크로스백을 한쪽 어깨로만 메면 좋지 않다.



서류가방이나 핸드백을 한쪽 손으로 드는 게 가장 좋지 않다.

나의 롤모델

사우의 롤모델로부터
성공 열쇠를 찾아봅니다

글 박원민(동부영업지원팀)

운명을
극복한

노력의 기적



동부영업지원팀 박원민 사우의 롤모델
고전음악가 '베토벤'



• 내 인생의 롤모델 •

대학시절, '음악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그 수업을 통해 위대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는데, 베토벤도 수업시간에 다뤘던 여러 음악가 중 한 명이였다. 베토벤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다. '9번 교향곡 합창'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이 곡을 쓸 당시 베토벤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베토벤의 음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를 찾아보면서 베토벤이라는 인물에 푹 빠지게 되었다.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완성한 뒤, 대중에게 곡을 발표하는 영화 속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청력을 잃은 상태라 사실상 오케스트라 지휘가 불가능했지만, 그가 작곡한 교향곡의 첫 연주만큼은 직접 지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그는 무대에 오른다. 비록 지휘하는 곡을 들을 순 없었지만, 마음속에 곡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곡을 진행시키고, 결국 기적적으로 무사히 지휘를 마치게 된다. 관중들은 베토벤의 곡에 깊은 감명을 받고 환호와 박수를 선사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베토벤을 통해서 깨달았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고, 힘든 날도 많겠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귀머거리라네.
내가 하는 일로서는
이 사실이 무서운
상태일 수밖에 없네.
하지만 만일
가능한 일이라면
나는 이 숙명에
도전하고 싶네.

— 베토벤



순탄치 않은 삶,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천재성과 초인적인 노력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년)은 독일의 서양 고전음악 작곡가다. 독일 본에서 태어났으며, 성인이 된 뒤로는 거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다.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57세로 생을 마친 그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환기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이며, 작곡가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 가운데에는 〈교향곡 3번〉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 〈교향곡 9번〉 피아노곡 〈엘리제를 위하여〉 〈비창 소나타〉 〈월광 소나타〉 등이 있다.

베토벤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원래 일곱 남매를 낳았지만 대부분 일찍 죽었다. 베토벤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장남 역할을 하게 됐다. 어머니가 죽은 뒤 가정 부양의 몫도 베토벤이 도맡아야 했다. 그의 동생들은 골칫거리에 가까웠다. 첫 번째 동생인 안톤 카알 베토벤은 작곡가가 되려다 재능이 없어 포기하고 세무서원이 되었는데, 형의 초기 습작들을 팔아치우는 등 형을 괴롭혔다. 막내동생 역시 돈을 형에게 빌려주고 그것을 빌미로 형의 작품을 마음대로 처분했다.

베토벤의 첫 음악교사는 아버지 요한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은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아홉 살 나이에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명성을 알고 있던 아버지 요한은 아들을 신동 삼아 돈을 벌려 했으나 결과는 시원찮았다.

베토벤은 열일곱 살 되던 1787년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모차르트를 만난다. 모차르트의 요구에 의해 베토벤은 즉흥곡을 연주했는데,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그것을 암기하고 치는 거라 여기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러자 베토벤은 평소 가장 자신 있던 즉흥실력을 보여주



위하여 모차르트에게 즉흥곡의 테마 주제를 요청한다. 베토벤의 뛰어난 즉흥연주는 모차르트를 감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 즉흥곡을 듣고, 모차르트는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는 옆방으로 뛰어가 이렇게 외쳤다. “저 사내를 잘 지켜보게, 나보다 유명하게 될 존재가 나타났다네.”

베토벤은 1796년부터 청력을 잃어갔다. 그는 심각한 이명 증세를 보여 음악을 감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대화도 피하게 되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어도 작곡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돈벌이 수단이던 공연 연주는 점점 어려워졌다.

베토벤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빈 바로 바깥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하일리겐슈타트에서 1802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내며 자신의 증세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쓰는데, 베토벤은 음악활동을 위해 여생을 살겠노라는 자신의 결심을 담았다.

베토벤은 피아노 소리를 조금이라도 감지하기 위해 피아노 공명판에 막대기를 대고 입에 물어서 그 진동을 턱으로 느꼈다고 전해진다.



인연 앞에 떠올리는 낮은 속삭임

〈내 사람이다〉 광정은

〈내 사람이다〉는 인기 패션잡지 '휘가로', '싱글즈', '코스모폴리탄'에 재직하며 연애, 인물, 여행 등 다양한 기사를 쓰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온 광정은 기자의 에세이집이다. 한 달이면 200장들이 명함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지은이도 '인간관계'가 익숙해지지 않는다.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관계, 그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내 사람이다〉는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않은 이에게 위로받기도 하면서 성숙해가기도 하는 '너와 나,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 '일', '사람들', '일상'으로 나뉘어 소개되고 있다. 가만 생각하면 그 네 가지를 빼면 사람의 삶에 뭐가 남을까 싶은 것들, 다시 말해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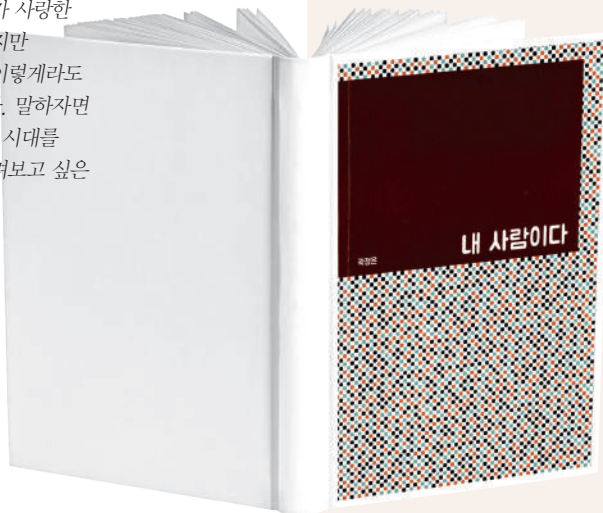
10년 이상 같은 일을 계속하면 남모르는 통찰이 생긴다고 한다. 무심히 읽는 지난 이야기 속에서 삶을 변화시킬만한 단서들이 떠오른다.

책에는 총 3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도 포함되어 있고, 광정은 기자가 개인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실명이 나오지 않는 대신 인물의 특징에 맞는 별명이 붙는데 그 의미를 살피는 것도 재미있다.



본의 아니게 상처받고 일부러
상처준 기억도, 아프지만
되돌아보고 싶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라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말하자면
이 글들은, 나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내 또래들과 돌려보고 싶은
'비밀일기' 같은 것이다.

— 프롤로그
'이것은 내게 치유했다'
중에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는 아내의 추천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연애사를 다룬 시뮬레이션 이야기 일 거라 생각하고 대충 넘겨보다가 나도 모르게 내용에 빠져들었다.

유명한 기자가 쓴 이 책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가볍게 엮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가볍지 않다. 여러모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자가 돼줄 책이다.

— 글 백문흙(전기과)

문화 콘텐츠

〈내 사람이다〉와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영화 }



〈인 디 에어〉

해고를 위해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삶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인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은 회사에서 해고하기로 한 직원을 찾아가 당신이 해고됐다는 통보와 함께 해고 이유를 그럴싸하게 엮어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최소화시킨다. 1년 322일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빙햄의 유일한 목표는 천만 마일리지를 모아 세계 일곱 번째로 플래티넘 카드를 얻는 것뿐이다. 천만 마일리지 달성을 앞둔 어느 날, 방문 해고통지 대신 온라인 해고 시스템을 도입하자 신임사원이 등장하고 천만 마일리지 달성은 위기를 맞는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빙햄은 '품위 있는' 해고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동반출장에 나선다. 이 출장에서 목적지 없이 떠도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처음으로 진실한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개봉 | 2010년
주연 | 조지 클루니, 베라 파미가 등

{ 연극 }



〈친정엄마〉

모녀,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

〈친정엄마〉는 방송작가 고혜정이 쓴 사모곡 에세이가 원작이다. 2004년 발행된 이래 3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인데, 연극으로 화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마흔이 다 된 딸에게 여전히 아가라고 부르며 뭐든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친정엄마와 그런 엄마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마 땀에 못 살아”라는 말로만 화답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녀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되어간다고 했다. 모녀지만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가 볼만하다. 박혜숙, 조양자, 이경화, 차수연 등 명품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이 연기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사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전한다.

일시 | ~2015년 8월 30일까지
장소 | 대학로예술마당 1관(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 전시 }



〈회화-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소통에서 비롯되는 관계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서 혹자는 ‘2차원의 그림’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자는 창 너머의 풍경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창은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소리가 전해지며 빛과 어둠이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회화는 이러한 창과 가장 닮은 매체이다. 이러한 벽에 대한 사유와 소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전시가 〈회화-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이다. 전시에는 20~40대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 온 36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하나의 창으로 기능하는 작품이 다른 작품과 낯설게 만나 또 다른 의미의 다양한 연결성을 만들어 내는데, 회화를 감상하면서 ‘창’을 상상한다면 더 큰 소통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막혔지만 열린 공간이 되는 미술관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일시 | ~2015년 6월 21일까지
장소 | 블루메미술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Quiz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이원 품질관리과
유진욱 올레핀사업개발팀
김수아 영천저유소 김용경 사우 자녀
최범수 한양주유소(광주시 동구 남문로)

USB저장장치

김민철 정유Heavy제품팀
정낙형 남양주지사
최운정 신촌셀프주유소(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로)
이도희 고객(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성장의 기록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
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
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
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
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이달의 엽서



<주요 경영활동·CEO 동정> CEO 서울대 특강
우리나라 인재 양성과 회사 우수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 이영하(윤활운영팀)



<두런두런 수다방> Controller부문 춘계 산행
동료애를 돈독하게 쌓은 산행 사연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_ 박지민(윤활운영팀)



<애호가들의 수첩> 수목사의 반려동물에 대한 법
반려동물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생각해보 수 있었습니다.
_ 위영준(고객,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내 마음의 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날씨 좋은 요즘 가족과 다녀오기 좋은 곳이에요.
_ 조영세(고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고마을로)



<섬을 걷다> 보령 외연도
다양한 소재로 흥미로운 정보를 담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_ 김현우(신규사업팀)



<100세 습관> 목 자세 습관
고객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바른 자세를 알게 됐습니다.
_ 김현호(가리산주유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는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를 낸다 하여
그 이름을 얻었다.
고운 속살과 기품 있는 자태를
여러 층의 색감으로 표현해 본다.